자비원력으로 세운 인도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그대는 자비보살

보명 스님 경주 보광사 주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인도 보드가야 불가촉천민 지역.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물이었다. 첫 우물을 파고 물을 퍼 올리기 직전, 보명 스님 곁으로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스님은 관세음보살 정근을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이들도 스님의 염불 소리에 맞춰 관세음보살을 외쳤고, 곧 맑은 물이 쏟아졌다. 희망의 물이 솟는 자리에 학교 건립의 희망도 피어났다.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불가촉천민이란 굴레와 차별의 삶에서 벗어날 터전이다. 초등학교로 시작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연이어 건립됐고 지역 내 아이들을 위한 무상 교육이 시작됐다. 이제는 파담파니 관세음 간호대학 불사도 추진 중이다.

삶의 의문 끝에서 만난 〈금강경〉

53년 전, 보명 스님은 삶에 대한 의문과 진리를 향한 뜻을 품고 출가했다. 이후 손에서 놓지 않고 독송한 경전은 〈금강경〉. 동학사 강원 시절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을 보며 새롭게 발심했고, 보리암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며 독송한 〈금강경〉은 수행과 포교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됐다.

"〈금강경〉은 수지독송만 해도 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읽고 공부하지 않는지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지를 몰라서구나'라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고된 삶과 가족을 향한 애착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그러다 출가 후 〈금강경〉에서 삶의 방향과 진리를 찾았다. "오직 부처님 말씀!"이라는 원력이 마음을 채웠다. 경전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서원으로 동국대에서 한문학을 공부했고 대학원 과정도 진학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왔다. '오직 부처님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포교 원력, 새 전법 방향을 제시하다

1987년 전법을 위해 부산 동래구에 관음포교원을 개원했다. 당시만 해도 포교원이 드물 때였다. 적극적인 포교 방법도 도입했다. 먼저 어린이 한자 교실을 열었다. 한자 교실에 온 아이들로 법회를 시작했고, 점차 청소년 법회와 청년회 그리고 가족법회까지 확장됐다. 범음어린이합창단을 만들어 공연을 했고, '해조음'이라는 어머니 크로마하프단을 구성해 KBS홀 무대에 서며 문화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갔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다 보니 금세 100평이 넘는 도심 포교당 건물로 자리도 옮겼다.

정확히 10년. 보명 스님은 고요한 산사가 그리워졌다. 우연히 찾은 경주 깊은 산속에서 지금의 보광사 터를 찾았다. 30여 년 전이다.

"도심 포교를 10여 년 하고 나니 이제 자연과 함께 조용히 수행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 자리를 옮기게 됐지요."

스님은 암자를 지어 수행하기 시작했다. 수행터는 도심에서 산속으로 옮겼지만 전법은 계속됐다. 동의대 철학과 교수로 강의했고 신도들과도 인연을 이어 갔다. 보광사 대웅전과 요사채로 이어지는 넓은 도량에는 계절마다 은방울꽃과 원추리, 앵초, 할미꽃이 피어났다.

인도 성지에서 싹튼 교육 원력

2013년에는 신도들과 인도 성지 순례를 떠났다. 이전에도 도반들과 순례를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성지마다 구걸하는 아이들이 맨발로 따라다녔다.

〈금강경〉 수행, 교육 전법으로 이어지다
인도 불가촉천민 아이들 위한 무상 교육
보시 인연 더해져 초·중·고 연이어 설립
델리대 합격으로 돌아온 교육 전법 결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와서도 그 간절한 마음이 계속돼 2월에 아는 교수님과 다시 인도로 갔어요."

두 달 전 가이드를 했던 인도인 신뚜에게 연락해 아이들 몇 명만이라도 모아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제안에, 그 역시 같은 뜻을 내비쳤다.

교실 한 칸을 세우기 위해 1000만원이 필요했다. 교사 월급과 교재비 등의 운영비도 매달 100만원 지급해야 했다. 스님의 원력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면서 교실 한 칸 한 칸이 더해졌다. 한 도반은 은사스님의 팔순을 기념하며 교실 한 칸을 보시하기도 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또 다른 스님도 외쳤다.

"나도 교실 한 칸!"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희망의 터전

2014년 봄, 학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원력의 씨앗이 희망으로 피어났다.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보여 주길래 '그래, 여기에 짓자'고 결정하고 물 펌프를 설치했어요. 물이 있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물이 나오고 공사 자재가 있으니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신뚜에게 아이들한테 스님을 따라 관세음보살을 불러 보라고 시켰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신나게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 학교명이 떠올랐다. '관세음학교'. 하지만 관세음보살을 뜻하는 인도말 '아바로키테슈바라(Avalokiteśvara)'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 대신 연화수보살을 뜻하는 '파드마파니(Padmapāṇi)'를 줄인 '파담파니'로 학교 이름을 지었다.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는 아이들이 청결하게 지낼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깨끗한 화장실을 짓고 펌프 우물을 곳곳에 설치해 세면장과 샤워실을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급식실을 만들고, 멀리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자전거 100대도 선물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재봉을 배울 공간도 마련했다. 교실 2층에는 법당을 만들어 관세음보살을 모셨고, 운동장에는 백옥으로 관세음보살 입상을 세웠다.

그해 11월 30일, 학교 준공식과 입학식, 그리고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교실명은 정진반, 지혜반, 보현반, 문수반. 깨끗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교실을 채웠다. 아이들은 수계를 통해 법명을 받고 삼귀의를 올렸다. 지금도 매일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명상 교육도 이어지고 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는 포교와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수행과 배움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많은 인연이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구역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검은 봉투에 불사금을 넣어 준 보살님, 학교 담장을 쌓아 준 마하회 스님들, 관세음보살상을 모신 동아기업, 우물 108개를 보시한 그룹 대원플러스 등등. 셀 수 없는 인연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아이들을 키워 냈습니다."

준공식 후 10년 뒤, 스님은 델리 공항에서 삼배를 받았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려는데 인도인 학생이 다가와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를 졸업해 올해 델리대학에 입학했다"며 인사한 것.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거리에서 부모 삶을 그대로 이어 갔을 거예요. 교육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명 스님은 지난해 성지 순례를 계기로 동참한 기형 스님과 전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인도는 세계에서 어린이와 청년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부처님 당시 목련 존자, 부르나 존자도 목숨 걸고 전법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포교와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 온 세상이 한 송이 꽃이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그 땅에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함께 전법합시다."



보명 스님이 경주 보광사 관세음보살 입상 앞에 섰다. 이 관세음보살상은 인도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운동장에 세워진 백옥 관세음보살 입상의 원형이다. 보명 스님은 1974년 울진 불영사에서 출가해 동학사 강원에서 수학하고, 1982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으며, 부산 관음포교원 개원과 교정 법회, 불국사 교육 자원봉사 활동, 동의대 철학과 강의 등을 이어 왔다. 1997년 경주 산내에 보광암을 창건했으며, 2014년 인도 보드가야에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를 설립해 초 · 중 · 고 교육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현재 경주 보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개교 10주년을 맞아 스님들과 교직원, 학생, 후원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교실에서 웃음 짓는 보명 스님과 아이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조계종
보 림 사
주 지 정 응
사부대중 일동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로 224
전화 061-864-2055

지장도량
미 륵 사
주 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전화 062)222-1145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중 현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전화 062)226-0108 팩스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 지 동 초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전화 062)265-0801